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세대’에 대한 관심은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던 20세기 초엽에 본격화되었다. 매우 다른 시대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인구집단이 같은 사회에 공존하는 현실이 ‘세대 문제’의 객관적 토대다. 이 강연은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이나 세대불평등 담론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각 세대 구성원들의 실제 인식과 삶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다음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생각해본다.

주요 논의내용

- 오늘날 세대 담론의 문제점과 올바른 접근법
- 세대 차이와 세대 내 다양성을 함께 보기
- 세대 간의 이해와 이음을 위한 관점

우리는 매일 미디어에서 세대의 관점으로 사회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담론들을 접한다. 말하자면 정치, 회사 직급, 소득, 고용, 주택, 사회인식, 정치성향, 인간관계, 가족, 사랑 등 많은 면에서 ‘세대 특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말과 글, 이미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것처럼 범람하는 세대의 이야기들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대가 대체 무엇인지, 세대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세대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한국사회의 각 세대 구성원들의 삶의 현실과 살아온 생애사는 어떠한지, 각 세대의 가장 긴급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행복해야 할 세대들 간의 대화와 이해,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찬찬히 살펴야 한다.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고속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급변했기 때문에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심하다고들 하지만 세대에 관한 담론이 폭증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세대문제를 다룬 기사의 연간 총 건수를 장기적인 추이로 분석해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5년, 2019년 등 특정 연도에 계단형으로 폭등하는 흥미로운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담론의 양적, 질적 변화가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을 계기로 일어난 것인지 추적해보면 ‘세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실은 정치적, 상업적인 맥락에서 생겨난 것들임을 보게 된다.

‘세대 묶음’ 역시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유래를 갖는다. 우리는 ‘MZ세대’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접한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모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용어지만 MZ세대는 한국적인 현상이다. 이 담론도 2021년 보궐선거 이후 급증했는데, 이후 광고업계에서 대대적으로 활용되면서 상업화되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MZ세대’에 대한 각종 스테레오타입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런 세대 고정관념이 확산되면 청년들이 직장이나 기타 사회조직 내에서 낙인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분야에서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 『그런 세대는 없다』,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 휴대폰,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미디어의 세대 담론은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기술,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현실과 역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한 상징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가 생산하거나, 미디어에 보도되는 세대의 상들에서 비판적인 거리를 가져야 한다.

현대적 현상인 세대 문제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속도와 관련된다. 급변하는, 그래서 매우 다른 시대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구집단들이 같은 사회, 같은 조직, 가족, 공동체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상황의 산물인 것이다. 이 문제의식을 집약한 개념이 '비동시대적인 것의 동시성'이다. 예술사학자 빌헬름 핀더는 1926년에 출간한 『유럽 예술사에서 세대의 문제』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복합적 관계를 최초로 이론화하였으며, 지난 100년 동안 세대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1928년에 출간한 『세대 문제』에서 같은 세대 구성원들 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이런 세대 내 다양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양성과 역동성을 간과하고 각 세대의 생애와 현실을 단순화하는 왜곡된 담론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정규직으로 살아왔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만, 청년들은 정규직은 커녕 구직도 어렵고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며 소득도 불안정하다는 식이다. 그와 반대로, 옛날에는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직장에서 힘든 것도 참으면서 일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편한 일자리만 찾으려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소비 수준은 높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양쪽 다 틀렸다.

먼저 직업구조를 보면 중·노년 세대의 다수는 생산직 노동자, 판매직 영세자영업자, 단순노무자다. 사무전문직의 다수는 40대, 30대, 20대다. '갑질 상사 = 50대'나 '청장년 세대 = 고헌력 화이트칼라'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잘못된 결론이다. 고용형태와 안정성에서 '기성세대 정규직 기득권이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의 안전성 문제도 세대론적 오해가 많다. 젊은 비정규,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다 희생되면 '노동자'가 아니라 '청년'의 희생으로 담론화 되는데, 이는 문제의 계층적 본질과 진짜 노동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주거와 자산 문제의 본질은 계층세습과 세대 내 계층분화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고려사항을 중요시해야 한다. 첫째, 각 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처한 시대 상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각기 다른 세대의 개인들이 태어나서 자란 역사적 시간의 정치, 문화, 경제 상황이 다르다. 둘째, 그래서 시대 상황의 차이에 따른 각 세대의 일반적인 생애 과정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셋째, 세대 내의 갈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했을 때 세대 간의 정의와 연대를 이해하는 접근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세대 현실은 복잡하다. 어떤 세대가 더 운이 좋은지, 더 힘든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를 단순히 따지는 거대담론은 사회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세대의 이야기는 더 풍부하고 두터워져야 한다. 청년, 중년, 노년 세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과 생애사, 그리고 인식과 욕구를 촘촘히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세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세대현실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다.

일시
2023년 4월 24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사진, 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강연 후 아래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dRxyiE6UnwXcd1oc9>